

10월의 기도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5)



1. DCEM이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서 2014년 해외성회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2.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 2014년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충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4.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5. 주님 안에서 꿈과 소망을 갖고 이 땅의 빛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DCEM 성회안내

2014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CGI대회에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를 초청 강사로 10월 29일, 31일 세미나가 열릴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뜨거운 기도 부탁 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오사카순복음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장로님께서 후원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양호, 김정환, 박예림, 박우택, 순복음정릉교회 조종숙 목사, 정낙숙, 한선희, 함석숙, 010-2726-****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외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의 특별 메시지

행복을 찾아서

인간은 원래 행복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성경 말씀대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좋은 일을 이루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인간의 마음이 교만과 탐욕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같이 자기를 점검해야 될 것은 교만과 오만, 욕심과 탐심이 마음에 들어와 있는가입니다. 제인 애덤스는 상원의원이던 부친의 슬하에서 유복한 생활을 했으나 어느 날 소아마비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되고 난 다음 그녀는 유럽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가서 놀란 것은 부유하게 자란 그가 몰랐던 빈민촌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빈민들이 모여 사는 판자촌 같은 곳을 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자원 봉사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빈민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 빈민들에게 사랑을 받으니 이 세상에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행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미국으로 부랴부랴 돌아와서 자기 재산을 정리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1889년 시카고에 빈민 복지 기관인 헐 하우스(Hull House)를 세웠습니다. 미국 내에 200만 명에 달하는 아동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백악관 아동회의도 창설했습니다. 그 결과 1931년, 제인 애덤스는 안짱다리에 곱사등이면서 미국 여성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극히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인간은 사랑하고 사랑 받아야 행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고 도울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도우면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러시아 지도자 4차원영성 컨퍼런스

신유기도 후 성령체험과 기사와 이적 간증 쏟아져
21년 전 성회 참석자 목회자로 성장, 콘퍼런스 주도



“우리 딸아이 팔에 피부병이 있었는데 신유기도 후 딸의 팔이 깨끗해졌어요” “가슴에 큰 혹이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귀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이제 통증이 없어졌어요” “어릴 때부터 시력이 매우 안 좋았어요. 지금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팔을 마음껏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신유기도가 믿음으로 선포된 후 참석자들의 간증이 끊없이 쏟아져 나왔다. 참석자들은 성령의 기사와 이적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러시아 지도자 4차원 영성 콘퍼런스가 지난 9월 25, 2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국립공연장에서 열렸다. 블라디보스토크 오순절협의회가 주최하고 DCEM(사무총장 시가끼 시계마사 장로)이 주관한 이번 콘퍼런스는 ‘주여 러시아를 부흥케 하소서’라는 주제로 열렸다. 러

아 전역에서 목회자와 리더 3000여 명이 모여 들었다. 이들은 다시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한 조용기 목사를 진심으로 환영했다. 9월 25일 오후 7시(현지시각). 블라디보스토크 국립공연장은 찬양의 열기로 뜨거웠다. 블라디미르 솔라코프 목사가 조용기 목사를 소개하자 청중들은 일어서서 환호하며 박수로 한국에서 온 주의 종을 환영했다. 환영하는 박수소리는 한참 동안 더욱 강하게 이어졌다.

조용기 목사는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실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라고 말한 후 믿음과 4차원의 영성에 대해 강연했다.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토대로 조용기 목사는 “혈루병 여인은 오직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의 말을 전해 듣고 생각과 꿈과 믿음이 변하기 시작했다”며 “긍정적인 생각, 꿈, 믿음, 말이 기적을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조용기 목사는 폐병으로 죽을 직전에서 하나님을 믿고 치유 받은 자신의 삶을 간증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며 혈루병 여인이 믿음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듯이 우리는 기도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다고 설명한 후, 우리가 믿는 꿈과 비전이 자신과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설교에 앞서 순복음도봉교회 성도들이 찬양에 맞춰 북춤과 부채춤 등 한국무용을 선보여 성회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조용기 목사의 성령 충만한 메시지를 들은 러시아의 목회자들은 교회성장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더 큰 비전을 갖게 됐다.

나도 탕자인가?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1. 육신적인 사람, 둘째 아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인 것처럼 영의 나와 혼의 나와 육의 내가 삼위일체로 되어 있습니다. 육의 나는 육신을 좇는데, 이 둘째 아들은 육신의 나에 잡혀서 혼도 육신의 노예가 되고, 영도 육신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끌려 다녔던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의 노예가 되면 영도 혼도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21절은 육신의 일에 대해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18~19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하면서 아버지께로 그 발걸음을 돌립니다.

2. 혼적인 사람, 맏아들

그러나 맏아들은 자기 동생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주 못마땅했습니다. 혼적인 사람 맏아들은 무엇이든지 이성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은 율법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고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이성적이며, 혼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재산을 모조리 탕진한 동생에 대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중략)...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누가복음 15장 11~32절>

서 분노를 느꼈고, 그 동생을 무조건 다시 받아주는 아버지에게서 반항했습니다. 아버지의 비이성적이고 비율법적인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온 동생을 무조건 용서하는 아버지도 잘못되었고, 방탕하여 재산을 탕진한 동생은 더 잘못되었고 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지가 되어 돌아온 동생에게 사정없는 정죄와 심판을 내렸고, 동생의 허다한 허물을 덮고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에게 분노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 앞에서 누가 옳습니까? 정의란 것은 나만 옳은 것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눅 18:10~14)고 하신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옳게 살아도 자기를 높이며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 있는 곳에 가서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병든 자에게 찾아 가서서 고치시고, 배고픈 자에게 찾아 가서서 먹이시고, 슬퍼 우는 자에게 가서서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큰 사랑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영혼이 잘못된 죄인들이 득실거리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가서 죄인들을 회개시키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시키는 역사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있는 곳에 계시며, 가난한 사람이 있는 곳에 계시며, 병든 자와 같이 계십니다. 우리의 가운데 죄 짓고 방탕한 사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구원받을 대상입니다.

3. 영적인 사람, 아버지

본문의 맏아들은 혼의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육의 아들이고, 아버지는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탕자를 품에 품는 것은 영적인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한 것처럼 영적인 아버지는 육체적인 자식이 회개하고 돌아오니 끌어안아서 그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버지는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죄를 짓고 불

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런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4. 사랑의 역사

사랑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고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맛있게 먹고 즐기게 하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값 주고 산 우리를 위해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고, 아들 된 증거로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며, 아버지가 예비한 신발을 신겨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물질과 환경을 상속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시고 매우 좋아하시며,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닮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즐기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너무나 행복해 하십니다.

우리의 인물이 잘났기 때문도,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할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용서가 우리 안에 체험되어 같은 용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이다. 죄의 용서는 당신과 내 안에 나타나는 가장 위대한 초자연적인 기적이다” 이와 같이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용서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남에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용서하는 마음이 기적이고, 그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용서를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있을 지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와 사랑은 위대한 기적을 만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용서로 늘 받아주시지 결코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으십니다. 탕자와 같은 우리들을 사랑으로 품에 안아 주시는 용서와 사랑의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러시아 지도자 4차원영성 컨퍼런스

3000명 리더, 러시아 복음화 꿈 품어

‘조용기 목사 초청 러시아 지도자 4차원 영성 컨퍼런스’가 열리기에 앞서 지난 9월 25일 오전 조용기 목사는 주최측 관계자와 함께 조찬을 나눴다. 블라디미르 술라코프, 유리 일첸코, 알렉산드르 불고브, 다니야르 카르갈고예츠, 세르게이 킴, 바딤 아빠린 목사는 한국의 오순절운동과 부흥에 매우 관심이 많았다. 이들은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믿음과 기도의 힘을 경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러시아에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고 사역하는 목회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한 후 격려했다.

이번 성회를 주최한 블라디보스토크 오순절협의회회장 블라디미르 술라코프 목사는 1993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의 성회에 참석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됐다. 술라코프 목사는 조용기 목사의 4차원의 영성을 토대로 복음을 전하고 러시아 복음화의 소명을 갖게 돼 2009년부터 해마다 두 차례씩 러시아 성도들을 데리고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방문해 조용기 목사의 설교를 통해 영성을 충전한다고 했다. 그들은 이번 조용기 목사의 방문으로 러시아가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특히 이번 성회에는 많은 간증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하바로브스크에서 온 마리나 목사는 조용기 목사의 방문을 21년 동안 기다렸다고 말했다. 그녀는 “21년 전 조용기 목사님의 성회에 참석해 성령체험을 한 후 목회자가 됐다”며 “조용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적 세계 등의 책을 읽고 여의도순복음교회가 궁금해서 한국을 방문하고 오산리 기도원에도 몇 차례 다녀왔다”고 말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2012년 6월 블라디보스토크 오순절협의회 회원들이 조용기 목사를 찾아와 성회 요청을 해 이뤄진 것이다. 이들은 조

용기 목사의 러시아 방문 및 성회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려왔고, 20년만의 방문이 이뤄지자 경륜장을 빌려 대형집회를 준비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러시아 정부가 대형집회 취소를 요구했다. 그래서 이들은 목회자 중심의 컨퍼런스로 변경해 개최했고, 하루에 3000여 명의 리더들이 참석하게 된 것이다. 이번 성회에 참석한 모든 러시아 목회자들과 리더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이 러시아 땅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남으로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기를 기도한다.

조용기 목사초청, 세계선교와 교회성장을 위한 C.G.I 컨퍼런스 개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열려



세계선교와 교회성장을 위해 마련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교회성장 컨퍼런스(C.G.I Conference)가 오는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갈보리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다.

말레이시아 최대 교회인 갈보리교회는 여의도순복음교회 C.G.I 이사인 프린스 구네라트남 목사가 담임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는 곳이다. 프린스 구네라트남 목사는 1958년 12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1972년 쿠알라룸푸르

갈보리교회에 부임했다. 구네라트남 목사는 조용기 목사에게 교회성장을 배운 후 갈보리교회를 이슬람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 9000여 명의 성도가 출석하는 최대 교회로 성장시켰다. 세계화 나남의성회 부회장과 말레이시아기독교협의회 회장장을 역임한 구네라트남 목사는 현재 5000석의 대성전을 포함하고 있는 갈보리컨벤션센터를 완공했다.

말레이시아는 전체인구 약 3000만여 명 중 9.1%가 기독교인이다. 이처럼 기독교가 타종교에 비해 적은 것은 말레이시아가 이슬람교를 국교로 정하고 있고 동남아시아를 지배하는 전통적인 불교사상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말레이시아에는 오순절 교회가 급성장하고 있다. 순복음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신앙과 성령운동, 오주복음과 삼중축복이 말레이시아에도 뿌

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말레이시아에서 최대교회를 이루고 있는 갈보리교회가 하나님의성회 교단이며 갈보리교회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FGA(Full Gospel Assembly)교회도 오순절계통의 독립교회다. 이들 교회 성장의 배경은 뜨거운 기도와 말씀에 대한 열정, 그리고 다양한 민족들에 대한 깊은 배려 때문이다.

갈보리컨벤션센터가 주최하고 국제교회성장연구원(C.G.I)과 DCEM의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조용기 목사의 ‘4차원의 영성’을 배우기 위해 동남아시아 지역과 전세계 교회에서 목회자와 선교사, 신학생 및 일반 성도 등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최측은 컨퍼런스를 통해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과 전 세계에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번 타오르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조용기 목사는 10월 29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4차원의 영성을 통한 희망의 메시지를 참석자들에게 전할 예정이다.